

2017년 9월 27일, 한경면 조수2리 조수2리노인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변수진(여, 1934년생, 한경면 조수2리)

- 줄거리: 천 년 동안 살았던 지네가 사람으로 환생했다가 그것을 알아본 사람 때문에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.
또, 어떤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한 명 더 나타난 일이 생겼다. 알고 보니
쥐가 아이가 밭은 침을 먹고, 아이와 닮은 사람으로 환생을 했다가 결국은 부모
에게 발각되어 죽었다.

[제보자] 말 타고 멋진 하르방이 넘어가는디 이제 같으면 장관이라. 넘어가당 그 사람을
만낫거든. 그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. 지네이로 환생허연게. 경 허난 입 ‘아’ 할
때 칼로 찔령 보난 천 년된 지네이. 아이고. 나 그때 좀 아니 들었 그 생각하난
겁난. 지네이가 천 년 웬난 사람뒈언.

또, 쌍둥이 닮은 아기가 또 잇어. 쥐가 쌍둥이하고 닮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
라. 어멍네가 못허는디 춤 밟으민 쥐가 먹고, 먹는 것도 ?찌 먹고 헤가난 어느
것이 지네 아들인지 몰랐인디 말제는 알아가지고 쥐가 지더라고. 촛아내언 아들
은. 아버지가 찾고 쥐는 죽고. 전깃불 싸 노난 아무것도 안 나와 이젠.

- 핵심어: 지네이(지네), 환생, 쥐, 춤(침), 쌍둥이, 말, 하르방(할아버지)